

現代服飾에 나타난 非對稱 디자인 研究

崔京姬

湖南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專任講師

A Study on Asymmetry Design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Kyung Hee Choi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igeonhole theoretical notions of asymmetry and historical flow of asymmetry designed dresses, understand the trend of asymmetry design in modern fashion and find out its plastic charact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asymmetry is un-harmony artistic structure that unbalanced left and right in designing.

The asymmetry fashion were seen that drapery dress of Egypt, Greece, Rome in ancient times and design by strong color contrast in heraldry and hose, accessory in the middle ages. In modern times, it was seen as complicated and mixed appearance by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The asymmetry designs in modern fashion are shown varied styles by asymmetry of silhouette, detail, fabric, wearing method..

The characters of these are a sense of de-construction, formative sense, and exaggeration

The asymmetry design must be made by cutting, sewing, and high degree of technique through the latest skill and study.

I. 서론

복식은 형태, 선, 색채 등의 조형요소로 구성됨으로써 다른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예술양식을 수용, 표출한다.

현대는 규격화, 획일화, 집중화, 중앙집권화 등의 성격을 띠는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탈규격화, 개성화, 세분화, 분권화 등의 다양화된 성격을 띠는 탈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분야의 기성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점점 개성적인 요소들이 중요해지고 복식미에 대한 가치나 표현방법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형태나 고전적 미적 준거인 균형, 질서 등 종래의 미적 규범에서의 탈피가 미적인 새로운 의

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패션에는 다른 예술 분야에서처럼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와 반동으로 일어나는 반항적이고 회귀적인 일련의 움직임들이 보여지며 문화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지을 만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건축, 미술, 음악 등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변화의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복식에도 반영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위기의식, 복잡한 상황들이 다양한 조류와 경향으로 현대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980년대 풍의 패션트렌드의 강세 속에서 에스닉, 미니멀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유행 형상과 더불어 자유로운 표현에 의한 비대

칭의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는 가운데, 향후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조형으로서의 비대칭의 개념과 이를 의상에 활용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는 '00 S/S~'02 A/W에 발표된 디자인을 연구범위로 하였고, 이에 전문서적 및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패션전문지 Collections, Fashion News, Fashion Show, Book Moda 등을 중심으로 현대복식의 비대칭 디자인 기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적인 창조성과 숙련된 의복 제작 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대칭 디자인의 기법과 미적 특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연구,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개성을 추구하려는 현대의 독특한 미적 표현을 위한 실험적 이면서도 독창적인 예술감각을 갖춘 다양한 의상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대칭의 개념

비대칭(asymmetry)이란 디자인할 때 좌우를 불균등하게 한 부조화적인 미적 구성이다.¹⁾ 즉 중심선의 양 측면이 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대칭 균형은 좌우의 크기가 달라도 교점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어시메트리 밸런스(asymmetry balance) 또는 인포멀 밸런스(informal balance)라고 한다.²⁾

비대칭 균형은 같은 양과 힘의 디자인 요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놓이거나 서로 다른 힘의 요소를 다른 양으로 배치해도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힘이 약한 것을 많은 양으로 하고 힘이 강한 것을 적은 양으로 사용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다.³⁾

비대칭은 형태상으로는 불균형이지만 시각적인 무게를 갖고 있어서 보는 이에게 변화있는 형태로써 안정감을 주며 개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시각상의

힘의 정돈에 의하여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비록 과학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각적, 감각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대신 언밸런스를 통한 밸런스의 묘미가 있다. 비대칭에서의 균형이란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말한다. 균형은 선, 면, 형, 크기, 방향, 재질감, 색, 명도 등 시각 요소의 배치량과 성질 등의 결합에 의해 표현되며 동적 균형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균형이 무시되었을 때는 시각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와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⁴⁾

대칭은 질서를 비대칭은 질서로부터의 탈피로 간주된다. 대칭 균형이 평범한 효과가 있다면 비대칭의 균형은 예측하지 않는 신선함을 주며 역동적이고 복잡 미묘한 리듬감,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비대칭 균형은 대칭 균형보다 훨씬 부드럽고 율동감이 있어 보이고 예술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균형이다. 따라서 복식 디자인에서의 새로운 표정을 연출할 경우에 비대칭 구성이 자주 사용된다. 대칭 구조를 깨뜨림으로써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율동으로 흥미와 화려함이 발휘된다. 기계적인 정확성을 가진 대칭보다 비대칭 균형을 얻는 데는 높은 감각이 요구된다. 즉 비대칭 디자인은 단순한 수량적 비례만으로 만들 수 없으며,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배열이 잘 된 디자인은 개성적이며 매력적이고 다양한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⁵⁾ 비대칭 균형의 사용에는 디자인의 테크닉이 요구되므로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

2 조형예술에서의 비대칭

조형이란 점, 선, 면, 색, 빛, 공간, 시간 등의 요소와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여 시각적, 촉각적, 또는 역학적으로 2차원, 3차원 공간 내에 자율적이며 창조적으로 형(shape)이나 형태(form)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 입체구성과 평면구성 등으로 분류되어 진다.⁶⁾

회화에서의 비대칭 구도는 우연적이고 비의도적인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얼핏 보았을 때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계획 없이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⁷⁾

타이포그래피에서의 비대칭 구성은 대부분의 현대 시각 전달 디자인의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능적이면서도 율동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칭 구성보다 시각적으로 더욱 강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현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⁸⁾

조각은 3차원의 입체로 물리적 균형과 시각적 균형으로 분류되어 감지된다. 비대칭 형태의 조각은 물리적 균형과 심리적 균형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고정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시각적 무게 중심이 물리적 중심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즉 물리적으로는 균형이 깨어지지만 시각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 조각에서 시각적인 균형은 물리적 중량감의 이동과 더불어 변화와 심리적인 쾌감을 불러 일으킨다.⁹⁾

건축 분야에서의 비대칭은 현대 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현대 건축은 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와 이상적인 질서를 나타내던 형태에서 탈피해서 인간에게 시각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체험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자유로운 조형의지를 바탕으로 한 생동감 있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¹⁰⁾

1960년대에 지어진 발렌시엔느의 카르멜 교회는 몇 개의 입면으로 표시하던 차례의 건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조형적이면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1)

Paolo Venini는 1949년 손수건을 모방하여 비대칭의 자유로운 형태로 빛은 듯한 형태의 유리잔을 디자인 하였는데, 이는 50년대의 전형적인 비대칭의 유리볼(bowl)은 비대칭의 물결치는 듯한 테두리로 특징 지워

진다.(그림 2)

이상에서 살펴본 조형예술 분야에서의 비대칭은 좌우가 다르지만 무게, 형, 재질감, 명도 등 구성 요소들의 변화와 배치에 의한 여러 가지 힘들의 조정에 의하여 시각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어둡고 작은 요소는 밝고 큰 요소와 시각적인 무게가 같아 보이며, 저명도 부분은 보다 넓은 고명도와 면적은 다르지만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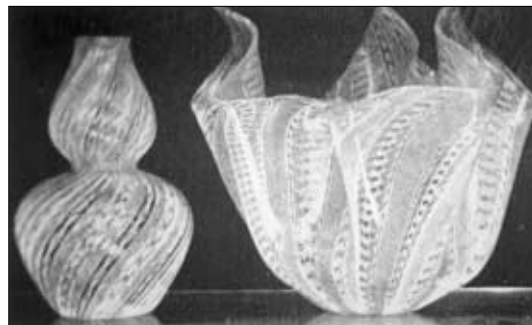
이처럼 비대칭에서의 균형은 동등한 물리적 중량의 분배라기보다는 시각적 충격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대칭을 이루는 요소의 시각적 충격이 극소량일 경우에는 비대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¹²⁾ 시각적 중량감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불균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¹³⁾

조형예술 분야에서 비대칭의 시각적인 특성과 잠재적인 지각 반응은 대칭과 반대이다. 즉 대칭은 균형적으로 보이고 안정적이며 움직임이 없는데 반하여 비대칭 이미지는 자극적이고 열광적이며 흥분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변화, 성장 또는 생명력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은 융통성있고 다양한 구성방법이라 할 수 있다.¹⁴⁾ 비대칭 균형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정형적인 균형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은밀한 신비로움을 준다.¹⁵⁾

이상의 내용은 조형예술 분야에 포함되는 의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비대칭 의상은 선, 형, 재질감, 색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갖는 양과 힘에 의해서 좌우에 같은 시각적 무게가 배치되었을 때 심리적인 균형



<그림 1> Eglise du Carmel de Valenciennes
Architectes, Les Ann es 60 D'anne Bony



<그림 2> Vase en Cristal Blanc et Vase en Cristal Blanc et
Rose, Paolo venini, Les Ann e's 50 D'anne Bony

을 이룰 수 있다.

비대칭 의상에서의 균형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균형감각이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계산도 인간의 직관적인 균형감각을 따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의 추구는 비대칭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이는 비대칭 의상이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창의적인 표현과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3. 비대칭 의상의 사적 고찰

1) 고대

인류가 짐승의 가죽이나 털 등으로 제작하여 추위나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였는데¹⁶⁾, 그 당시의 의복은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봉제와 재단이 되어 있지 않은 비대칭적인 형태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집트 복식은 기본적으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옷감 그대로를 허리에 둘러 그 끝을 허리에 끼워넣거나 끈으로 천 위를 둘러매어 고정시킨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의복인 로인클로스(loin cloth)와 그것이 변형된 것

으로 허리에 둘러 입는 짧은 옷인 쉐티(shenti), 로인클로스의 일종으로 앞부분에 주름을 잡아 장식한 킬트(kilt) 등을 착용했는데 신분에 따라 둘러 입는 형태와 장식에 차이가 있었다. 트라이앵글러 에이프론(triangular apron)이나 칼라시리스(kalasisiris)에 잡힌 방사성의 주름에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한 쪽에만 주름을 잡은 로인클로스나 좌우가 다르게 드레이프된 의복을 통해 비대칭된 균형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¹⁷⁾ 하이크는 몸에 걸치거나 두르는 식의 솔형 의상으로 두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이집트 의상 가운데 가장 우아한 형태로 독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기본복식은 솔이 달린 튜닉과 솔이다. 초기 수메르 여자들의 솔은 왼쪽에서부터 드리워져 오른 쪽 팔을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착용되어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인다. 바빌로니아의 솔은 단에 수를 놓거나 솔을 단 것들이 있는데 양어깨에 걸치거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왼 쪽 팔을 늘어뜨려 입었다.¹⁸⁾(그림 4)

그리스의 히마티온은 맨몸이나 키톤 위에 둘러 입은 의복으로 드레이퍼리에 의한 주름이 인체의 원통형



<그림 3> Amenhotep 세가 입은 Haik,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4> 앗시리아의 솔,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 5> 그리스의 히마티온, 20,000 Years of Fashion

특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입체형이다.¹⁹⁾ 특히, 네크라인과 햄라인 부분의 사선 그리고 드레이퍼리에 의해서 생기는 비대칭적인 부정형의 주름이 비대칭 디자인의 우아하고 극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그림 5)

에트루리아의 테베나(tebena)는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목둘레와 선 장식으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그림 6)

로마의 복식은 그리스 복식의 영향을 받아 드레이퍼리 형식의 의복이 주로 활용되고 토가(toga)는 드레이퍼리형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주름이 표현하는 리드미컬한 울동미와 자유롭게 둘러 입어 비대칭적인 균형미를 주었다.²⁰⁾(그림 7)

따라서 고대의 드레이퍼리 의상은 인체 위에 착장되었을 때 보여지는 비대칭적인 가장자리선의 선장식과 부정형의 주름으로 인해 비대칭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는 의복으로 자연스러운 울동감을 보여준다.

2) 중세

비잔틴 시대에는 토가가 없어지고 대신 팔라(palla)와 팔리움(pallium)이 튜닉(tunic)이나 달마디카(dalmatica) 위에 착용되었다.²¹⁾ 14-15세기 복식의 특징은 문장복과 부분적으로 색이 다른 옷이 유행한 점이다.²²⁾ 이것은 좌우가 다른 디자인으로 색이나 문양을

중심선의 좌우에서 다르게 나누어 나타낸 것으로 여인의 경우는 쉬르코(surcot)나 쉬르코 뚜베르(surcot-ouvert), 남성은 고타르디(cotehardie)나 호즈(hose)에 이러한 사례가 보인다.²³⁾ 14세기 말부터 다채로운 색의 자수가 유행하자, 의상에다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을 수놓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은 생가(生家)의 문장을 코타르디나 쉬르코에 나타내었고 처가의 문장은 왼쪽에 나타내었다. 부인은 시가(妻家)의 문장을 오른쪽에 처가(妻家)의 문장을 왼쪽에 나타내었다.²⁴⁾(그림 8)

좌우의 색이 다른 호즈는 전체에 사용한 면적을 다르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강렬한 색의 대비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세의 비대칭 디자인 요소는 강렬한 색의 대비와 문양,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현대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곡선을 활용한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사선의 여림과 좌우가 다른 구성선은 슬림 앤 롱(slim & long) 실루엣과 함께 성숙한 여성미를 보여 주며, 이 시기에는 스카프와 모



<그림 6> 에트루리아의 테베나,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7> 로마의 토가,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 8> 문장양식이 있는 코타르디, 20,000 Years of Fashion

자, 장신구를 좌우 비대칭으로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런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920년대의 마들렌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는 바이어스 커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인체를 인위적으로 구속하는 구조물들을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복식미와 경직된 패션감각을 반대하고, 인간 체형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보아 인간 본성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새로운 복식미를 추구하였다. 의상구조에 대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지식을 지니고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동시에 입체적 기법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그리스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다양한 기하학적인 커팅으로 보다 화려함을 주었다.²⁵⁾ 어깨에서 내려오는 드레이프의 곡선을 비대칭으로 가슴 밑에서 고정시키고 이 흐름은 사선을 따라 진동선으로 이어져있고, 허리의 곡선을 강조하면서 내려온 주름들은 다시 왼쪽으로 모아져 봉제되어진다. 이로써 왼쪽 어깨의 노출과 함께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에 이르는 바디라인은 오른쪽 어깨의 드레이프와 왼쪽 스커트의 풍성한 드레이프와 비대칭으로 대조를 이룬다.(그림 9)

세계 제2차대전후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조형예술 전반에 비대칭 디자인을 가져왔고 패션에 있어서

도 자유로운 표현의 분위기와 함께 비대칭의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그 후,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복식미의 기존 균형 및 질서를 파괴하는 전위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한편 20세기의 물질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전 패션으로 나타나 구성방식의 해체나 실험적 모습으로 표현되어 80년대의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이들의 작품은 주로 몸을 속박하지 않는 옷, 평면적인 천을 입체의 몸에 맞춰 형을 갖지 않는 헐렁한 옷으로서 장식의 폭이 넓은 비대칭 여림이 특징이다.(그림 10)

또한 9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절충, 역사적인 복고주의 및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 아방가르드, 해체주의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복잡한 현상으로 비대칭디자인이 더욱 활발하게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에 와서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포스트모더니즘, 양면가치의 등장, 미적관점의 변화로 고전적인 미나 우아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성적이고 기괴한 것, 희극적인 것도 복식의 매



<그림 9> 비오네의 비대칭 의상, Vionnet's



<그림 10> 평면적인 비대칭 여림, Antonio Marras, '00-01 S/S Collectios



<그림 11> 인체를 왜곡시키는 좌우 비대칭 실루엣, Pascal Humbert, '01 S/S, Collections



<그림 12> 실루엣에 의한 비대칭, Callaghan, '01 S/S, Collections

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일정한 양식을 벗어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나 흥미로운 요소들이 중요시되고 창조적인 비대칭 디자인의 기법과 아이디어로서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III. 현대복식에 나타난 비대칭 디자인

1. 비대칭 디자인의 표현방법

1) 실루엣에 의한 비대칭

의복의 실루엣(silhouette)이란 의복의 외형선, 즉 전체적인 윤곽선을 말하며 유행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제까지의 의복에는 실루엣의 범주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형태들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본래의 기능적 측면과 구성 형식을 탈피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실루엣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형의 실루엣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실루엣으로 착장과 실루엣의 혼합에 의해서도 비대칭 디자인으로 창조된다. 부정형의 실루엣은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 소개되었는데 형태 파괴를 통한 다양한 비대칭 디자인을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의 영향에 따라 전형적인 의복 구조가 해체되고 인체의 기능적인 개념을 탈피한 구성 방법에서 비대칭적인 형태의 실루엣이 보여진다.²⁶⁾ 비대칭 의상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므로 중앙선에 의해 나누었을 때 좌우가 다른 독특한 실루엣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대칭의 형태에서 벗어나 인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의외적인 형태에 의한 흥미로움을 유발시킨다.(그림 11)

복식의 실루엣은 상·하의 높이, 좌·우 폭의 차이, 전·후의 차이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²⁷⁾(그림 12)

따라서 비대칭 디자인의 실루엣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지는 효과가 다르게 연출되며, 대부분의 비대칭 의상은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 패턴을 모두 제작하는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소재의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소재에 대한 이해와 입체 재단에 의한 고도의 테일러링 기술이 요구된다.

2) 디테일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detail)이란 '세부', '부분'의 뜻으로 장식적 효과를 높이는 세부 장식을 의미하며 대부분 봉제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디테일은 디자인의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디자인 포인트로 많이 사용되며,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한 기초적인 것으로 비대칭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봉제 방법에 따른 디테일로는 드레이프(drape), 프릴(frill), 개더(gather), 러플(ruffle), 플라운스(flounce), 셔링(shirring) 등의 부분 장식과 의복의 구조와 종류에 따른 디테일로는 구성선, 햄라인에, 네크 라인(neckline)에 의한 선에 의한 디테일, 칼라(collar), 소매(sleeve), 스커트(skirt) 등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컬렉션을 보면 어느 시즌보다도 다양한 디테일의 사용과 이를 응용한 대담하고 극적인 비대칭 디자인이 선보이는데, 울퉁미와 기법의 반복을 통해 강렬한 분위기의 모티브가 많이 사용되어지며, 이는 수공예적이고 볼륨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러플이나 플라운스 등의 디테일을 1겹에서 또는 보다 여러겹 물결치듯 표현하여, 화려하고 보다 성숙된 80년대 풍의 새로운 여성미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과장된 분위기로 표현되어진다.(그림 13)

비대칭 디자인에서 가장 여성적이고 섹시함을 주는 디테일 기법은 개더나 셔링을 이용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유연하게 표현한다.(그림 14)

또한 여러 겹의 플리츠로 입체감있게 장식한 비대칭 디자인은 울동적이면서도 볼륨감을 준 실루엣을 연출한다.(그림 15) 바이어스의 원단을 접기 방식으로 수공예적으로 표현한 비대칭 디자인은 기법의 반복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된다.(그림 16)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복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적인 감각의 드레이프를 살린 디자인은 우아하고 섹시한 여성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오토 쿠튀르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대표적인 비대칭 디자인이다.(그림 17)

조형 예술에서의 선(line)은 중요한 시각적 역할과 작용을 하여 모양과 배경을 분리시키는 경계선을 이

룬다.²⁸⁾ 선은 유형과 방향에 따라 분류되며 복식에서의 선은 입체적인 인체에 입혀져서 실제로는 변화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선은 인간의 시지각을 자극시켜 시각방향을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디자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

할 수 있으며 유행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선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은 주로 바이어스, 사선 절개선에 의해 변화감과 자연스러움을 함께 연출하는데 기존의 인체 곡선을 의식한 절개라인의 상식을 깬 자유롭고 다양한 커팅선의 도입으로 변화를 준 입체패턴



<그림 13> 플리운스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Vanghan Alexander, '01-02 A/W, Collections



<그림 14> 개더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Atelier Versace, '97 A/W, Collections



<그림 15> 플리츠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Atsuro Tayama, '01 S/S, Collections



<그림 16> 접기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Shelly Fox, '01 S/S, Collections



<그림 17> 드레이프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Scherrer, '01 S/S, Collections



<그림 18> 바이어스 커팅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 Tristan Webber, '01-02 A/W, Collections

에 의한 의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햄라인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비대칭이나 대담하게 변화된 네크라인의 선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의복 내에서 구성선은 평면의 옷감을 입체인 인체에 맞추기 위한 구성과정에서 형성되는 선으로 비대칭 디자인에서는 좌우의 구성선을 다르게 함으로써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선은 비대칭으로 구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안정한 이미지로 인해 시각적으로 강한 주목성을 가지므로 현대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부각한다.(그림 18)

또한 햄라인은 디자인의 창작 의도에 따라 장식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변화의 여지가 많다. 비대칭 디자인에서는 일반적인 수평적 햄라인에서 벗어나 고의로 길이의 변화를 주거나 바이어스 커팅선을 살린 사선이나 다양한 디자인선이 활용되고 있다. 비대칭으로 처리된 햄라인은 착장되었을 때 시선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울동적인 면을 부각시킨다.(그림 19)

네크라인은 몸판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의복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대칭 디자인에서 예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많이 쓰여지는 디테일이고 비대칭 의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대칭의 네크라인(asymmetry neckline)

에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오블리크 네크라인(oblique neckline), 독특한 커팅에 의한 네크라인, 그리고 두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가 조합된 네크라인 등이 있다. 비대칭 네크라인은 두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를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20)

칼라(collar)는 의복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칼라의 형태는 크기와 높이에 따라 변형되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비대칭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칼라로는 좌우의 모양이 다른 칼라로서 주로 좌우의 칼라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른 칼라로 되어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크기와 모양이 다른 칼라의 조합은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둥글고 작은 것에 비하여 크게 드레이프진 칼라는 면적과 형태의 대비로 인해 시각적으로 강한 비대칭 효과를 보여주며 흥미로움을 유발시킨다.(그림 21)

소매도 의복의 일부분으로 디테일에 속하지만 신체 상부의 양측에 위치하므로, 물리적·시각적으로 좌우 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²⁹⁾ 비대칭 의상에서는 좌우에 서로 다른 크기와 종류의 소매를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독특한 실루엣을 형성한다.(그림 22)

일반적인 수평에서 벗어난 비대칭 햄라인의 스커트는 비일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형태로 인하여 시각적



<그림 19> 비대칭 햄라인,
Yohji Yamamoto,
'01-02 A/W, Collections



<그림 20> 비대칭 네크 라인,
Sar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21> 비대칭 칼라, Sar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22> 비대칭 소매,
MilaSchön, '01-02
A/W, Collections



<그림 23> 비대칭 핏라인의 스커트, Eri Matsui & E·M·C2, '01 S/S, Collections



<그림 24> 색의 대비에 의한 비대칭, TSE New York, '01 S/S, Collections



<그림 25> 이질적 재질의 조화에 의한 비대칭, Gianfranco Ferré, '00-01 A/W, Collections



<그림 26> 소재의 대비에 의한 비대칭, Lanvin, '01-01 A/W, Collections

으로 강조되며, 좌우가 다르게 다양한 변화를 주어 시선의 움직임에 유도하며, 로맨틱하면서도 율동적인 면이 부각되어 보인다.(그림 23)

3) 소재에 의한 비대칭

소재는 색, 재질감, 문양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차이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관련시켜 대비를 이루었을 때 상반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강하고 뚜렷한 시각 효과를 보여주는 대비는 서로를 강하게 하는 역동적인 요소로서 약동적인 생명력을 부여한다.³⁰⁾

색(color)은 대비를 이루었을 때 비대칭적인 구성선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색상에 따라 동일한 면적이라도 크기가 달라보이는 색의 면적감에 의해 더욱 비대칭을 부각시키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래에는 정상미를 벗어난 불균형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서 색의 조화도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배색의 과감한 사용과 형태의 비대칭으로 개성미를 추구한다. 의복 전체의 색과 대비를 이루며 비교적 좁은 면적에 사용된 색은 시선을 강하게 집중시키며,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었을 때ダイナミック한 이미

지를 준다.(그림 24)

재질감(texture)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에서는 재질이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를 결합하는 것으로 하드와 소프트한 재질을 함께 사용하거나 용도가 다른 소재의 결합 또는 상반된 이미지의 결합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의복 안에 여러 가지 소재의 이질적인 재질을 조화시키고 재질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 불균형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25) 또한 소재는 재질감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여 광택의 비치지 않는 소재와 비치는 소재를 사선으로 매치시켜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6)

문양은 시선을 강하게 유도하며 주의를 끌며 강한 자극을 주는데, 크고 선명한 단일 문양은 한 쪽으로 치우치도록 배치되었을 때 비대칭성이 강조되어 활기를 띤다. 문양의 경우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로 인하여 시각적인 긴장감을 주어 강렬한 시각 효과를 갖는다.(그림 27)

4) 착장방법에 의한 비대칭

복식은 움직이는 인체 위에 표현되어 입체적인 형

태를 갖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복식의 심미적인 표현은 1차 조형에 의해 만들어진 의복이 2차 성형에 의해 인체에 착장되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칭의상도 착장방법에 따라서 비대칭으로 전환되어 질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유도하는 착장방법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보여준다.(그림 28) 이는 주로 망토를 어깨 위에 비대칭으로 둘러입거나, 헐렁한 빅 룩의 니트웨어, 또는 다양한 레이어드 룩, 아이템끼리의 믹스 등으로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비대칭 디자인으로 연출되고 있다.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은 장신구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착용하는 것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묶은 스카프나 한쪽 어깨의 큰 브로치나 코사지 장식 등은 문양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벗어난 형태로 인하여 시각적인 긴장감을 주며 다양한 레이어링에 의한 변화감을 준다.(그림 29) 한쪽에만 대담하게 길게 늘어뜨린 모피장식이나 머물러는 보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특징을 갖는다.³¹⁾(그림 30)

이처럼 장신구는 문양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벗어난 형태로 인하여 시각적인 긴장을 주며 다양한 레이어링에 의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2 비대칭 디자인의 미적 특성

1) 해체미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미의 개념을 해체시켜 미적으로 소외된 모든 표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확장된 미지향함으로써 우연적인 미를 추구하며, 하나의 평면 위에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요소를 동시에 첨가시켜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자유스러운 표현을 한다.

의상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성향은 기존의 의상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형으로서의 구축을 의미하며, 기존의 형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상호 텍스트의 교류를 의미하는 '이분법의 재구성'이다. 비대칭 디자인에 있어서 커팅으로 변화를 주거나 부풀리는 것, 있어야 할 곳을 없애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대비, 실루엣의 대비와 같은 표면적 측면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는 대비를 비롯하여 복식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의미 개념의 내면적 대비까지도 시각적 측면으로 가시화하여 의복의 형식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고 있다.

탈구조주의의 과학적 맥락과 예술적 현상이 혼용되면서 탈구조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성립되었는데,



<그림 27> 비대칭 문양,
Alexander
McQueen, '01-02
A/W, Collections



<그림 28> 착장방법에 따른
비대칭, Roberto
Cavalli, '01-02
A/W, Collections



<그림 29>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
Valentino, '01 S/S,
Collections



<그림 30> 모피장식에 의한
비대칭, Seredin &
Vassilien, '01 S/S,
Collections



<그림 31> 해체주의적 비대칭,
Sar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32> 고정관념의 탈피에
의한 비대칭, I.S.Sunao
Kuwahara, '01-02 A/W,
Collections



<그림 33> 바이어스 커팅의
조형적인 비대칭,
Alexander
McQueen, '01-02
A/W, Collections



<그림 34> 선에 의한 조형성을
살린 비대칭, Sari
Couture, '01 S/S,
Book Moda

이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비대칭적이고 전위적인 표현 등은 고정관념적인 미적 관념의 비율, 형태, 구조 등을 해체하여 기존 미의 비대칭성, 파괴성, 무질서와 같은 소외된 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인체를 강조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상의 일부를 생략하고 단순화하여 왜곡시킨다.(그림 31) 또한 디테일에 의한 해체주의적 비대칭 디자인은 고정관념적인 미적 관념의 비율, 형태, 구조 등을 해체하여 추의 미를 부각시킨다.(그림 32)

의상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성향의 비대칭 디자인은 두드러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게 하므로 나날이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개성 추구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2) 조형미

20세기 이후의 현대 복식에서는 커팅 기법과 제작 기술 또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의 드레이퍼리의 기법과는 다른 비대칭의 균형을 이루는 모던함을 볼 수 있다. 과거의 드레이퍼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이 봉

제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드레이퍼리하여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 조화로서의 실루엣을 중시한 것에 비하면 입체패턴에 의한 조형적인 미를 중요시하며, 다양한 혼합기법에 의한 형태미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어스 커팅과 우아한 이미지를 살리는 러플, 주름, 드레이프 등 섬세한 디테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새로운 율동미가 이루어지는데, 커팅된 선과 면의 날카로운 조합은 선과 면의 불규칙하고 비정형적인 미를 보이며 전통적인 복식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33)

조형적인 비대칭 균형을 이루는데는 디자인의 테크닉이 요구되며, 입체패턴에 의한 고도의 테일러링의 기술과 많은 숙련이 필요하며 인체를 둘러싼 유선형에 의한 커팅선은 우아한 조형미를 극대화시킨다.(그림 34)

형태에 있어 하나의 디테일로 인해 그 형이 변화되고 그 형태로 인해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예술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좌우의 칼라의 디자인이 다른 실루엣을 형성하며 유연하고도 율동적으로 표현되어진 비대칭 의상은 움직임의 느끼도록 하는 독특한 조형미를



<그림 35> 칼라에 의한 조형적 비대칭, Sar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36> 과장적 비대칭, Shinichiro Arakawa, '01-02 A/W, Collections



<그림 37> 아방가르드한 과장적 비대칭, Alexander McQueen, '00-01 A/W, Collections



<그림 38> 길이에 의한 과장적 비대칭, Joaguim Verdu, '01 S/S, Collections

보여준다.(그림 35)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독특한 조형미의 표현을 위해서는 실험적인 디자인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의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를 살린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동시에 입체적 기법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만이 조형미를 살린 완성도 있는 비대칭 디자인이 이루어 질 수 있다.

3) 과장성

비대칭 의상은 대비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고 과장되어진다. 대비란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력하고 자극적이고 주위를 환기, 집중시킬 수 있어서 강조의 기법으로 사용된다.³²⁾

비대칭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극단적인 사선의 활용, 과장된 볼륨감, 과장된 길이를 이용한 디자인 기법에서의 중심에서 벗어난 초점은 시각적인 긴장감을 이루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극도의 날카로운 커팅선과 가죽, 쉬폰과의 소재 대비, 그리고 흑백의 강한 색상 대비와 플라운스 디테일로 극적이고 과장된 분위기를 나타낸다.(그림 36)

입체재단에 의해 과장되게 장식된 특정 디테일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의상의 이미지를 아방가르드하게 나타내준다.(그림 37) 또한 지나치게 길게 늘어뜨린 소매나 머물러는 길이의 대비로서 강하게 시선을 집중시키며 기능보다는 미적 표현에 치중해서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8)

비대칭 디자인은 비일상적인 과장된 형태를 통하여 아방가르드하고 다양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외적인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개성을 중요시하는 실험적 디자인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³³⁾

이처럼 비대칭 의상은 대비나 강조에 의해 과장되고 모든 시각적인 요소에 대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부분들이 서로 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룰 때 더욱 과장되어 아방가르드하고 현대적인 느낌과 주목성을 갖는다.

IV. 결론

복식은 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창조의 소산으로서 인간의 미적 가치관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포함한 정신의 근원적인 의식이 표명된 외적 조형물로서,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 모두를 초월한 자유스러움을 복식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복식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창조성과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비대칭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대칭 디자인은 디자인할 때 좌우의 불균등하게 한 부조화적인 미적 구성으로서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간주된다. 대칭 균형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울동감이 있으며 예술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비대칭 의상을 살펴보면 고대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은 드레이퍼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이 보여지는데, 이는 인체 위에 착장되어졌을 때 보여주는 부정형의 주름과 비대칭적인 가장자리 선장식에 의한 비대칭적인 균형미가 특징이다. 중세에는 문장복과 좌우 색이 다른 의상과 호즈 등의 유행에 따른 강렬한 색의 대비와 문양,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볼 수 있다.

현대의 1920년대에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아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좌우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였고, 마들렌느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에 의한 그리스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이퍼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복식미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로 표현되었고 일본의 디자이너에 의해 비대칭 디자인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 최근에는 실험적이고 더욱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다양한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다.

패션에 표현된 비대칭 기법으로는 크게는 실루엣, 디테일, 소재, 착장 방법에 의한 비대칭으로 구분된다. 실루엣에 의한 비대칭은 인체와의 기능적 개념과 의복 구조가 해체된 구성 방법에 의해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고 있다. 디테일에 의한 비대칭은 드레이프, 프릴, 개더, 러플, 플라운스, 셔링 등의 부분 장식과 구성선, 행라인, 네크 라인에 의한 선에 의한 디테일, 그리고 칼라, 소매, 스커트를 통해서 나타나며, 수공예적인

기법과 함께 강렬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소재에 의한 비대칭은 색, 재질감, 문양에 의하여 표현된다. 색은 대비나 색의 면적감에 의해 비대칭 효과를 나타내고, 이질적인 재질감의 조화와 문양을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의해 강렬한 이미지의 비대칭 효과를 얻는다.

착장 방법에 의한 비대칭은 의도적으로 착장 방법을 비대칭하게 입어 연출하는 경우인데, 이는 레이어드, 입는 방법의 변화, 모피나 머플러를 한쪽 어깨에만 장식하거나 큰 장신구로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와 같은 비대칭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대칭 디자인은 기존 의상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형으로서의 구축을 의미하며 기존의 형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으로 재구성하거나 미의 고정 관념을 해체하여 자유스러운 표현을 하며 나아가서는 추의미를 부각시킨다.

또한 입체패턴에 의한 조형미를 추구하며 다양한 혼합기법에 의한 혼합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상 구조에 대한 완벽한 균형미를 살려야 하고 소재의 노하우와 고도의 테일러링 기술이 밀착되어야 한다.

비대칭 디자인은 대비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극도로 과장된 볼륨감, 길이, 사선 처리, 디테일의 반복, 강조 등에 의해 과장되고 극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며 시각적인 긴장감을 이룬다.

따라서 점차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복식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대칭 구조 및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드리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미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하고, 조형미의 원칙에 근거한 고도의 디자인의 원리를 터득하고 감각적으로 응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현대의 미적 표현을 위한 창조적 예술 감각의 비대칭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과 연구를 통해 소재의 특성에 맞는 재단 및 봉제 등 고도의 테크닉 등 숙련된 의복 제작 기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라사라고육개발원, 복식사전, 도서출판라사라, 1991, p. 400.
- 2) 오히선, 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p. 37.
- 3) 김유경, 조대현, Fashion & Textile, 교학연구사, 2000, p. 92.
- 4) 권상구, 평면구성, 학문사, 1993, p. 105.
- 5) 오히선, 박화순, 앞 글, p. 37.
- 6) 민철홍 외 4인,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1994, p. 64.
- 7)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도서출판 예경, 1997, p. 69.
- 8)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6, p. 154.
- 9) 최병상, 조형, 미술공론사, 1990, p. 80.
- 10) 전병규, 현대건축에 나타난 건축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1) 민인신, 비대칭 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2) Mary Kefgen & Phyllis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p. 285.
- 13) 임연웅, 디자인 방법론 연구, 미진사, 1992, pp. 148-9.
- 14) 프랭크 R. 치섬 외 2인, 오병권 역, 디자인의 개념과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 39.
- 15)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p. 205.
- 16) Blanch Payne저, 이 중남외 역, 복식의 역사, 도서출판 까치, 1990. p. 10.
- 17)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복식 문화, 교문사, 1996, p. 107.
- 18)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p. 31-35.
- 19) Marilyn Revell Delong, The Way We Look, Ames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 44.
- 20)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앞 글, p. 111.
- 21) 정흥숙, 앞 글, p. 111.
- 22) 신상옥, 앞 글, p. 130.
- 2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7, pp. 168-9.
- 24) 정흥숙, 앞 글, p. 148.
- 25)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p. 411-418.
- 26) 이경희 외, 패션 디자인 발상, 교문사, 2001, pp. 46-47.
- 27) 김은희, 복식의 실루엣과 소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5.
- 28) 오연주, 햄라인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분석,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1996.
- 29) 오히선, 박화순, 앞 글, pp. 93-4.
- 30) 최병상, 앞 글, p. 100.
- 31) 민인신, 앞 글, p. 56.
- 32) 이해영 외2인, 의생활과 패션, 경춘사, 1996, p. 79.
- 33) 민인신, 앞글, p. 60.